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동국사에는 왜 대나무 숲이 있을까?

20대 시절 무작정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 내가 자주 찾았던 곳은 군산이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세 시간이면 도착하는 적당한 거리, 대중교통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한 곳이었다. 그 시절 잦은 군산 여행 중 내가 꼭 들르던 장소 중에는 동국사가 있다.

1909년 일본에 의해 강건되어 일제 강점기 내내 일본인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었던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남겨진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다. 창건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건축물 곳곳엔 여전히 일본색이 묻어 있다. 아무런 장식인 없는 처마나 대웅전 외벽의 창문들 그리고 대웅전 뒤편 배경으로 보이는 대나무 숲이 그렇다.

우리나라 어느 절을 가도 배경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대나무 숲이 있는 경우는 없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변형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식물들을 대했기 때문에, 산에 세워진 절 주변에는 원래 살던 자생식물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국사 대웅전 뒤에는 대나무 숲이 있다. 이 숲은 일본에서 가져온 대나무로 조성한 것이라 알려진다.

동국사에 들러 대나무 숲을 둘러보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일본인들은 이곳에 하필 대나무를 심었을까?' 질문의 답을 얻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군산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토에 갔고, 그곳에서 대나무가 있는 사찰을 수없이 다녔기 때문이

다. 대나무는 일본 사찰에 심는 대표적인 식물이고, 대나무 중에는 '템플 뱀부'라는 품종도 있을 정도다.

'동국사에 왜 대나무가 있는가?'로 시작될 질문은 어느덧 '일본인들은 왜 사찰에 대나무를 심는가?'로 바뀌었다.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를 좋아한다. 일본 주택가에 가면 집 현관마다 대나무로 꾸민 '카도마츠'라는 장식이다. 신의 기운이 머물길 바라며 세우는 장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듯, 일본 사람들도 공사 현장에서 '지진사이'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 잎이 달린 네 개의 대나무로 사각 울타리 안에 제단을 세운다. 신성한 대나무를 이용해 성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일본 사람들이 대나무의 영험함을 믿기 때문에 전래된 풍습이다. 대나무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주요 이유는 일 년 내내 푸르른 이들의 영속성 때문이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대나무는 일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식물이다. 대나무의 뿌리줄기는 토양을 고정하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일본에서 대나무는 신성시될 수밖에 없는 식물이다. 서양으로부터 토목 공학 기술이 전파되기 전 대나무는 저수지와 강둑 주변에 많이 심어졌다. 또한 뿌리줄기 덕분에 지반 붕괴가 덜 일어나기 때문에 대나무 숲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면면을 떠올리면 대나무야말로 일본 사찰 정원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한국에 세우는 동국사를 완전한 일본식 사찰로 만드는 데 있어 일본인들이 원래 하던 대로 주변에 대나무를 가져다 심은 것은 무리가 아니다.

다시 동국사를 찾았을 때, 대나무 숲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중에 관한 의문을 품지 않았다. 대신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조경을 건축의 일부로 생각했다는 점, 오래 전부터 식물과 식물이 만드는 풍경, 정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존중하게 되었다.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를 재배할 때에 '이상적인 밀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나무를 주기적으로 베어 숲이 무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관리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대나무 사이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 정도의 밀도에서 대나무가 햇빛을 적당히 받아 어린 뿌리줄기가 잘 퍼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일본 사찰의 대나무 숲에 비해 동국사의 대나무 숲은 그 간격이 촘촘했다. 대나무의 키도 제멋대로고, 발 밑에 단정히 갖춰진 이끼도 없다. 일제강점기는 오래전 끝이 났고, 동국사는 온전히 한국식으로 자연스레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환경에 따라, 시간에 의해 식물은 변화한다. 식물은 누군가의 완전한 소유물이나 영원한 낙인일 수 없다. 나는 식물의 이런 점이 꽤 마음에 든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유수경 화정유치과 대표원장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무슨 치솔 쓰세요?"라는 질문을 받아본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치솔을 알려주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치솔을 사용하는지 캐묻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어떤 치솔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 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답은 간단하다. 치솔은 내 구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치가 없고 잇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편적인 치솔을 사용해도 큰 이상이 없다. 하지만 임플란트 식립 여부, 치주질환 유무 등에 따라 치솔 선택도 중요하다.

몇 년 전부터 치솔 머리가 일반 치솔의 두 배에 달하는 대왕치솔이 판매되고 있다. 대왕치솔이 양치 소요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입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기는 어려울 수 있다. 치솔 머리는 치아의 2-3개 정도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솔 선택에 있어서 치솔모의 강도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치솔모의 강도는 강·중·약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중간 정도의 치솔모를 사용해보고 자신의 잇몸 상태 등에 맞

치솔 선택과 올바른 치실 사용법

는 강도를 찾는 게 필요하다. 치솔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잇몸 등에 상처가 생기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다면 매우 부드러운 치솔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치태가 많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치솔모가 필요할 것이다. 부드러운 치솔은 치아표면 치태나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강한 치솔은 치아가 마모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치솔은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이는 자신의 치아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치솔을 선택했다면 올바른 양치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흔히 강하게 치솔질을 해야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오해일 뿐이다. 이를 닦을 때는 강도보다 얼마나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는냐가 중요하다. 치솔을 가볍게 잡고 치솔모를 치아 뿌리에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댄 다음에 치아 하나당 20번 정도씩 닦아주면 되는데, 이때 작은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만약 치주염이 심하다면 치아의 모든 부위를 마사지하듯 닦아주는 양치 방법(바스넷)도 있으며, 이는 가벼운 잇몸질환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양치법이다. 이 외에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솔모를 넣어 상하로 움직여 닦는 양치 방법(와타니베법)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나 익히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 양치질은 단순히 치아만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치아, 혀, 입천장 그리고 잇몸 아래 즉, 잇몸과 치아 사이까지 잘 닦아주는 것이 올바른 양치질인 것이

다.

하지만 양치질만으로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쉽지 않다. 치솔만으로 양치를 마무리하는 건 치아 전체의 70% 정도만 닦아 내는 것과 같다. 나머지 30%는 치실의 영역이다. 치실 사용은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를 제거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입안쪽에 위치해 양치질로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 사이 등은 치실을 통해 충치 예방은 물론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논문에 의하면, 치실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 치주염이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에서는 치주염 예방 효과가 78%에 달한다. 치실은 그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다.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 치아의 옆 표면을 잘 닦아낸 다음에 물로 입안을 헹구기만 하면 되는 매우 단순한 과정이다. 간혹 치실을 사용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피가 난다고 해서 치실질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지속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라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크라운 등 보철이 부착된 치아는 치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보철물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한다.

치아는 신체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 치유 능력이 없다. 충치는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전의 온전한 상태의 치아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치아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양치질과 함께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권하는 바이다.

기고



문길섭 시암승국민운동본부 대표

2주 전쯤에 한 성직자가 내게 "선생님은 행복하세요?"라고 물었다. 예기치 않은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다. "네. 행복합니다!" 대답을 해놓고 이유를 생각해냈다. 절대자와의 신뢰관계, 가족 친지들과의 원만한 관계,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이웃들과 나누는 일들이 아닐까 싶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암송사랑방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 '2년 안에 좋아하는 시 열 편 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 12월 18일 현재 195명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부터 구순을 앞둔 분까지, 대학총장직무대행도 있고 트럭을 몰고 식자재를 파는 아주머니도 계신다. 여기서 나이 지역 성별, 학력이나 종교의 차이도 없다. 시 안에서 누구나 서로 친구가 된다.

두 달 전부터 이 단톡방에 회원들에게 읽을거리를 드리기 위해 이미 썼던 칼럼을 고쳐가면서 한 주에 세 번 정도 올리는데 몇분이 이 글들에 대한 독후감을 보내

시(詩)가 건네 준 행복

주어 격려가 되기도 한다. 다음은 전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J회원이 보내준 댓글이다.

"어젯밤 늦은 퇴근길에 칼럼과 시 읽고 몽글몽글 따스함이 몽글몽글 마음에 꽃으로 피었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라' (필범)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잠 열심히 살았구나 싶고 관장님 덕분에 보람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보내주신 칼럼은 하루 중 밤낮 없이 언제나 위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내일 드림아트홀에서 캠페인 참여 회원들이 암송 축제를 갖는다. 시뿐만 아니라 산문, 경전 암송자도 있어 암송 축제라 명명했다. 내일 발표자 중엔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외울 분도 있고, 피천득의 산문 '오월'을 암송할 회원도 있다. 스물여섯 분이 다양한 시를 암송한다. 발표자들과 관람자들은 짧은 시간에 새로운 시를 만날 수 있어 좋다. 새로 만나는 시 중에 이런 시들이 눈에 띈다. '송년에 즈음하면' (유안진), '너의 이름을 부르면' (신달자), '시간에 대한 감사' (정연복), '어머니라는 말' (이대흥), '차를 마시며' (전원범) 등.

올해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은 가깝게 지낸 친지와 소원해진 일이다. 그가 별 거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내 발언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 바람에 그 동안 쌓아 올린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을 겪으면서 한결같이 같은 얼굴로 나를 대해 주고, 대해 줄 '암송 시'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지게 되었다.

지난 가을 매형의 팔순 기념 여행에서 갖게 된 시에

대한 추억도 특별하다. 팔순 기념식 때 축하시로 택한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암송이 그 자리에 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로 평가받기도 했다. 특히 3연의 다음 구절이 우리를 진지한 물음 앞에 서게 했던 것 같다. "뒀던 배 끼치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버린은 제발 살자디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몇 년째 출강하고 있는 교도소 강의 때 있었던 일도 잊지 않는다. 맨 앞자리에서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던 한 수용자가 강의가 끝나, 나감 준비를 하던 내게 앉은 자리에서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존함을 알 수 있겠냐고 하면서 불편으로 받아 적을 준비까지 했다. 몇몇 수용자가 웬 일인가 싶어 나가려던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난 이름을 물음으로써 내게 호의를 나타내던 수용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신상공개 금지 규정을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미안함을 드러냈다. 그분은 내 의도를 금방 알아채고 아쉬워하면서도 뜻을 접고 퇴장했다. 돌아오는 내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다.

또 하나. 강의가 끝나자 한 수용자가 다가오더니 한 부씩 나눠 준 강의 자료와 시 선집을 더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자기가 아는 이들에게 주변 무척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관심이 고마워 남은 자료와 시 선집 일고여덟 부를 다 주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스친 걸 보고 내 마음에도 행복감이 차올랐다.

새해에도 시는 여전히 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 독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社說

'오월정신' 헌법 수록으로 내란 역사 종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실시간 TV를 통해 목격한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서울의 봄'이나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장면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가 알다시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에 이어 탄핵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비상계엄이라는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 40여년전 똑같은 비상계엄에 죽음으로 항거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재조명되고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2·3사태 이후 블로그와 SNS상에는 비상계엄 하의 80년 광주와 40년 후의 비상계엄을 비교하며, 광주와 5·18에 감사를 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광주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

금도 다시 한번 감사라", "계엄을 겪어보니 광주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광주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등 광주 희생의 역사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12·3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5·18 광주 정신'에 대한 공감대가 2000년대 들어 어느 시기보다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광주정신이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수룩을 약속했다. 하지만 헌법전문수룩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하고 정치권도 동조했으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헌 가능성도 있는 만큼 5·18정신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지금,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내란 아니다'는 尹... 법적 책임 약속 어디갔나

'12·3 내란사태'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 비상계엄에 실패하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서도 탄핵안 가결 후 행동을 보면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모습이 구차할 정도다.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어제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12·3 내란을 소란'이라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불법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수사에는 최대한 버티고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처가 공조수사본부와 검찰로 이원화된 데 대해 중북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어제 업무 분장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중북수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관하기로 한 만큼 중북수사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없어졌다.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울분으로 터질 지경이다. 탄핵안 가결 전 법적 책임을 운운하더니 지금은 수사 방해 수준의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뻔뻔하기까지 하다.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無等鼓

오랫동안 이상했지만 지켜봤다.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채 TV에 나오고, 어퍼컷을 날리는 세리머니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열광시켰던 그는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전통시장, 도심 등을 찾았을 때도 그는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으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권의 경고를 거부하고 수

사회대개혁

사를 계속하다 좌천된 스토리는 충분히 주목을 받았다. 이후 특검 팀 합류,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에서 맹활약하고 검찰 내 기수와 라인을 모두 파괴하며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았다.

검찰 개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그는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들과 갈등을 만들어내며 보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국 대표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 가족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추미애 전 장관과는 쓸데없는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 모두를 지지해 했다. 그럼에도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화제였고, 기존 정치인에게 없는 신선함과 공경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뒤섞이며,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는 누구나 알듯, 또 부인이 말했듯 그는 "아무 것도 몰랐으며",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권력을 남용하고, 알랑한 법 지식으로 자신의 부인만을 감싸며,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2년 6개월을 날려버렸다. 급기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강국의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을 선포했다.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반헌법적, 반인간적, 반민주적, 반문화적 망동이다.

직무가 정지된 그를 감싸는 정치인과 세력에 분노한다. 민주사회에서 다른 것은 다 용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려 한 그와 이를 추중·옹호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라도 강력히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른이라면 집회에 나온 아이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